

201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A형 정답

1	①	2	①	3	④	4	②	5	④
6	③	7	②	8	⑤	9	④	10	④
11	⑤	12	①	13	④	14	④	15	⑤
16	①	17	⑤	18	③	19	④	20	⑤
21	②	22	①	23	②	24	①	25	①
26	②	27	⑤	28	②	29	②	30	⑤
31	④	32	③	33	③	34	①	35	③
36	⑤	37	③	38	③	39	⑤	40	①
41	③	42	⑤	43	⑤	44	③	45	①

국어 영역

A형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의사소통 전략 평가하기
화제인 '왕의 식사, 수라'에 대한 교수의 경험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라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교수는 화제인 '수라'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학생은 '저는 수라가 왕권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라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질문하며, 자신의 배경지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2. [출제의도] 필요한 정보 파악하기
'강한 왕권의 상징, 수라를 아시나요?'라는 표제는 의문형 문장이지만, 그것이 글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수라는 왕권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선정에 대한 바람'이 담긴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의사소통 전략 파악하기
㉠에서 동원은 대화와 발표 상황이 달라 걱정하는 지은의 말을 요약, 정리하여 말해주고 있다.
 4. [출제의도] 발표 전략 파악하기
고사성어를 활용하여 발표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④ 목소리에 힘을 주는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였다. ⑤ 마지막에 '팩션, 아직도 역사의 확대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청자의 동의를 유도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역사적 사실의 전달보다 창작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학생은 학생 2이다. 학생 1은 작가가 역사적 사실을 근거 없이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학생 2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지만 팩션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내용은 수용하고 있다. ⑤ 학생 2, 3 모두 팩션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발표 내용에 동의한다.
- ** 작문 **
6. [출제의도] 작문의 특성 파악하기
(가), (나)에는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식품 유형의 의미에 대해 알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⑤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과 학교 신문을 읽을 친구들이라는 독자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7.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식품의 유형별 장·단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① (나)에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유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제시하고 있고 ③ 과일·채소류음료를 과·채주스와 과·채음료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고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공전'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있다.

8.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고시'는 '알리어 게시하다'라는 의미이고, '게시'는 '내걸어 두루 보게 하여 알리다'이므로, '고시하여 게시하는데'로 바꾸어도 의미가 중복된다.
② '에'는 앞말이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인데 여기서는 앞말 '대부분'이 관형어 구실을 하므로, 격 조사 '의'가 적절하다. ③ '그런데'는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바꿀 때나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질 때 쓰며, '따라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될 때 쓰므로 '따라서'가 적절하다. ④ '규정되어져'는 '되다'와 '-어지다'가 쓰여 이중 피동이다.
 9.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④의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비춘다.'에서 거울의 특징이 드러나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야 자신이 가야할 길을 알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성찰이 필요한 이유, '나침반처럼'에서 비유적 표현,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에서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비유적 표현이 없다. ⑤ 거울의 특징이 없다.
 10. [출제의도] 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하기
1문단에는 친구와 사이가 소원해진 자신의 경험을 들어 글을 시작(㉠)했고, 상담 선생님의 추천으로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나와 있다. 2문단에는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마지막 문단은 바람직한 언어생활로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은 나와 있지 않다.
- ** 문법 **
11.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ㄱ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ㄴ은 자음군 단순화(탈락), ㄷ은 거센소리되기(축약)의 예이다. ⑤의 '활다→[할따]'의 음운 변동 현상에는 탈락은 일어나지만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다. ㄴ과 ㄷ이 모두 일어난 예로는 '값하다→[갑하다]→[가파다]'가 있다.
 12. [출제의도] 각 품사의 특징 파악하기
㉠의 '칠'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인 '개월'과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수관형사이다. ㉡의 '다섯'과 ㉢의 '팔'은 각각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인 '판', '년'과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수관형사이고, ㉣와 ㉤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와 함께 쓰이지 않으므로 수사이다.
 13. [출제의도]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 파악하기
ㄱ은 주어(그가)와 서술어(되었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고, ㄴ은 '창문이(주어) 많다(서술어)'라는 문장이 다시 전체 문장에 서술절로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① ㄱ에서 '대학생'의 문장 성분은 보어이다. ③ ㄱ의 '마침내', ㄴ의 '아주'는 부사어이다. ⑤ ㄷ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며, ㄹ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4.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한-번 [I]'과 '한-번 [II]'는 각각 명사와 부사로서, 모두 문장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다.
② '둘째 번'은 '두 번째의 차례'를 나타내므로 ㉠에 들어갈 말은 '차례'이다.
 15. [출제의도] 문장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
'인사 발령이 나서 가게 되었다'의 '가다'는 '직책이나 자리를 옮기다'의 의미로 필수적 부사어

[...(으)로]/[...에/에게]를 요구한다. 따라서 '인사 발령이 나서 총무과로 가게 되었다'처럼, '급히'가 아닌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야 한다.

** 사회 **

□ 출전: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 원론>

16.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유효수요이론'은 정부가 조세를 감면하고 지출을 늘려 국민소득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수요팽창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유효수요이론'에서는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② 케인스는 인위적인 수요팽창정책을 주창했으며, ⑤ 고전과 경제학자들은 인위적 시장 개입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1문단)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케인스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인 수요팽창정책을 실시하여 소득과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1문단)

고전과 경제학자들은 ① 모든 경제적 흐름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조절된다고(1문단) 보았으며, ② 이자율이 조정되어 저축과 투자의 크기가 같아지게 된다고 하였다.(4문단) 케인스는 ④ 투자가 저축보다 작으면 경기가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며(3문단) ③ 투자는 미래의 경기, 정치 상황 등의 요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5문단)고 하였다.

18. [출제의도]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기

①은 저축을 부정적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보기>는 상황에 따라 저축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관점에서는 ①을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무시하고 대상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① '상정(想定)'은 '어떤 상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함'의 뜻이다.

** 과학 **

□ 출전: 실버튼, <생리학>

20. [출제의도] 개괄적인 내용 파악하기

글 전체에서 초점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① 2문단에서 망막을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에 대해, ② 5, 6문단에서 양극세포와 신경절세포의 역할을, ③ 3, 4문단에서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의 광화학 반응에 대해, ④ 3, 4문단에서 광수용 색소가 빛 자극에 반응하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대뇌가 빛을 인식하는 시점은 막대세포의 로돕신이 분해되면서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 후,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었을 때이다.

④ 읍신과 결합하여 로돕신이 되는 레티넨은 비타민 A로부터 만들어지므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결국 로돕신의 합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⑤ 로돕신이 어두운 곳에서 합성과 분해를 반복하면 사물의 지속적인 파악이 가능해진다.

2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양극세포에 의해 막대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된다.(5문단)

② 양극세포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의 기능을

억제, 활성화하여 망막의 감응도를 조절한다.(5문단) ③ 원뿔세포의 광수용 색소 중 하나에 이상이 생기면 색맹이 된다.(4문단) 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빛 자극은 원뿔세포에서 전기적 신호로 바뀌고 이후 양극세포와 신경절세포를 거쳐 시신경으로 전달된다.(6문단)

23.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의 '나다'는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광고 효과'는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①의 '나다'는 '신체에서 땀, 피, 눈물 따위의 액체 성분이 흐르다'의 의미를 지닌다. ③의 '나다'는 '이름이나 소문 따위가 알려지다'의 의미를 지닌다. ④의 '나다'는 '절이나 기간을 보내다'의 의미를 지닌다. ⑤의 '나다'는 '길, 통로, 창문 따위가 생기다'의 의미를 지닌다.

** 기술 **

□ 출전: 나카야마 히데타로, <기계의 재발견>

24.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다양한 종류의 저울들을 원리에 따라 양팔 저울 및 대저울, 체중 저울로 분류하고 있다.

③ 저울의 원리는 제시되어 있지만, 원리에 대한 통념을 찾아볼 수는 없다. ⑤ 양팔 저울이 지닌 한계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만, 제시된 시각 자료는 체중 저울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한계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도 않다.

2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2문단의 '대저울의 경우~반침점을 움직여'라는 부분을 통해 ㄱ이 적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2문단의 '이렇게 대저울을 이용하면~쉽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ㄴ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D에 작용한 힘이 크면 관의 회전에 의해 랙을 E 쪽으로 더 많이 이동시키므로 E의 길이는 더 줄어들게 된다.

④ A에는 아래 방향으로, 랙에는 E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 예술 **

□ 출전: 지영래, <사르트르의 미술론>

2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사르트르와 근대 철학자들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이미지가 지각과 독립적인 의식인가 이미지가 지각에 속한 의식인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는 지각이든 상상이든 동일하다.

④ 사르트르는 이미지를 인식된 그 순간부터 온전한 전체가 되며 이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혹은 우리가 의도한 만큼만 구성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3문단)

28.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예술가가 나타내고자 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세계가 아닌 독립된 상상 세계에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4문단) 따라서 세부적 특성이 드러날 때마다 변화하는 실제 세계를 지각하려는 것은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것이 아니다.

① 조각은 상상 세계에서 이미지화하면 의도한 만큼 작품을 변하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4문단)

④ 이미지는 실제 세계의 속성들과 단절되어 상상 세계에서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3문단) ⑤

이미지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혹은 우리가 의도한 만큼만 구성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3문단)고 하였다.

29.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본질적으로 같은 세계를 인식 방법의 차이에 따라 나누어 인식하며, 이와 같이 나누어진 세계가 동시에 인식되지 않는다.(2문단)

① 실제 세계와 상상 세계는 인식 방법에 따라 나뉜다고 하였다. ③ 두 세계가 구분되는 이유는 인식 방법의 차이이다. ⑤ 분리된 두 세계는 독립적인 관계이며, 인과관계가 아니다.

30. [출제의도]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하기

㉠의 '애쓰다'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다'라는 뜻이며, '피력(披瀝)하다'는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하다'란 뜻이다. 적절한 단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쓰다'라는 뜻을 가진 '노력(努力)'이다.

** 갈래복합 **

□ 출전: 백석, <정주성>

윤오영, <마고자>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2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면서 상승의 이미지가 하강의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다.

② '흔들 같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공간의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날이 밝으면', '청배를 팔리' 올 것이라는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하기

①은 쓸쓸하고 허망한 정주성에 의해, ①은 외래문화에 대한 주체적 수용 태도가 사라지는 현실 상황에 의해 촉발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①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33.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송자'와 '금석문'은 '고려의 비취석'과 '추사체'의 탄생에 기여한 것으로, 무분별하게 수용된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용된 소재이다.

② '메기수염의 늙은이가 청배를 팔리' 오는 일상적인 삶이 '또'와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④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모습을 '진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현대 소설 **

□ 출전: 염상섭, <삼대(三代)>

34.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둘째 문단에서는 조 의관이 문중으로부터 ○○당 할아버지의 치산 요구를 받고 이에 대해 여러 면으로 따져 보는 복잡한 심리를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직접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창훈과 상훈이 언쟁하는 부분과 조 의관과 상훈이 논쟁하는 부분에서도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⑤ 인물들의 대화와 서술자의 서술 내용에 과거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현재와 과거의 장면이 교차되고 있지는 않으며 인물의 성격도 변화하지 않는다.

35.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조 의관은 ○○당 할아버지의 치산에 드는 비용을 내는 것이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중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는 없다.

① ①은 조 의관이 계산에 밝은 인물임을 나타

내는 표현으로, ○○당 할아버지의 치산에 드는 비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에는 묘막을 짓는 데 돈이 없는 조씨 문중 사람들이 부역으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조 의관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36. [출제의도] 중심 소재에 대한 인물의 태도 파악하기

조 의관은 치산을 자신이 문중에서 둘째 중시조나 되는 셈치고 하는 기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조 의관은 치산을 통해 문중에 기념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① 상훈은 ○○당 할아버지가 몇 대조인지도 모르고 “장한 사업 하슈.~호젓하다고 하십디까?”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치산에 대해 조 의관이 많은 돈을 들이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치산이 자기 집안에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둘째 문단에서 조가의 딸거지들은 조 의관의 주머니를 풀게 하려고 ○○당 할아버지 치산을 명목으로 내세웠음을 알 수 있다. ④ 창훈은 치산에 대해 조 의관이 충분한 돈을 내놓지 않아 자신이나 문중에서 뒷감당을 해야 한다고 불만이 섞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문중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

37. [출제의도] 인물 간의 대화 양상 파악하기

[A]에는 대동보소 운영으로 사천 원을 쓰고 또 치산으로 돈을 쓰려는 조 의관에 대한 조상훈의 불만이 드러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조 의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B]에서는 조 의관이 자신의 재산을 상훈에게는 일절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상훈에 대한 자신의 불만과 불신을 강경하게 드러내고 있다.

38.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조 의관은 “어떻게 유리하게~쓰는 방법이냐?”라고 말하며 상훈의 개인적인 행적을 비난하고 있으나 상훈은 조 의관의 말에 변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④ 상훈이 조상을 섬기는 데 지나치게 돈을 쓰는 조 의관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언쟁하는 모습에서, 상훈은 조 의관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고전 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이춘풍전>

3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춘풍이 황공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계집을 찾은들 어디 간 줄 알리요.’,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내려가 죽 쑤는 풀은 차마 볼 수 없더라.’에서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추월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기 보다는, 자신의 죄를 모르겠다고 하다가 매질이 계속 되자 죽기를 면하기 위해 춘풍의 돈을 물어 바치겠다고 하였다.

⑤ 비장은 춘풍을 잡아와 매를 매우 치게 한다. 하지만 춘풍의 다리에 피가 낭자한 것을 보고 매를 더 치진 못한다.

41.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보기>에서 남장을 통한 문제 해결은 여성의 지위가 제약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아내가 비장으로 활약했다고 하더라도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에 올랐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한자성어 파악하기

‘일거양득(一舉兩得)’은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뜻한다. 아내는 비장이 되어 춘풍을 찾고 춘풍이 빌려간 호조 돈도 돌려받고 추월도 혼냈다. 즉 비장이 되어 여러 이득을 한꺼번에 얻었다.

①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겁어진다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 ②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 ③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거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④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고전 시가 **

□ 출전: 허난설헌, <규원가>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소상야우의 댕잇 소리 섞여 도는 듯 화표 천년의 별학이 울고 있는 듯’과 같이 대구법이 사용되었지만, 녹기금 연주소리에 대한 표현일 뿐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44.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천상의 견우직녀’는 화자의 상황과 달리 일 년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으므로, 화자의 슬픔을 대변한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기

본문의 ‘꿈’은 그리운 임을 보기 위한 수단이며 <보기>의 ‘꿈’ 역시 불모로 잡혀간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것이다.

② 화자의 내적 갈등은 현실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⑤ 현실의 문제가 꿈을 통해 극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